

외상센터 간호사의 노인 통증관리 수행도

윤정은^{1*}, 조옥희², 양남영², 김영지²

¹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²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AIMS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외상 환자 중 노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와 비전형적인 통증 표현, 복합 만성질환으로 인해 통증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거나 관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 통증관리의 수행 수준을 파악하여 노인 외상 환자의 효과적인 통증관리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METHODS

본 연구는 외상센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 통증관리 수행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C도와 J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6개월 이상인 간호사 138명이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RESULTS

<Table 1> Level of Pain Management Performance in Older Adults (n=138)

Variables	Number of items	Mean±SD
Pain management performance in older adults	40	3.61±0.48
Pain assessment	19	3.88±0.50
Patient and family education	6	3.24±0.60
Pharmacologic management	8	3.70±0.54
Nonpharmacologic management	5	2.95±0.82
Effectiveness Evaluation	2	3.44±0.86

대상자의 노인 통증관리 수행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1±0.48점이었었다. 하위영역 중 통증사정이 평균 3.88±0.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약물적 관리가 평균 2.95±0.82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통증관리 수행도의 차이는 연령(t=2.50, p=.014), 종교유무(t=2.27, p=.025), 총 임상경력(F=4.77, p=.01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Pain Management Performance in Older Adults according to Nurses'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Characteristics	n(%)	Pain management performance		
		M±SD	t or F(p) Scheffé test	
Age(yr)	<30	97(70.3)	3.68±0.47	2.50(.014)
	≥30	41(29.7)	3.46±0.47	
Sex	Female	114(82.6)	3.58±0.46	-1.48(.141)
	Male	24(17.4)	3.74±0.55	
Religion	Yes	28(20.3)	3.79±0.58	2.27(.025)
	No	110(79.7)	3.56±0.44	
Marital status	Unmarried	119(86.2)	3.63±0.48	1.05(.295)
	Married	19(13.8)	3.50±0.44	
Position	Staff nurse	117(84.8)	3.61±0.45	-0.28(.783)
	≥Charge nurse	21(15.2)	3.64±0.59	
Total clinical experience (yr)	<3 ^a	32(23.2)	3.75±0.48	4.77(.010) a>c
	3-<7 ^b	77(55.8)	3.64±0.45	
	≥7 ^c	29(21.0)	3.39±0.49	
Working unit	Ward	29(21.0)	3.65±0.36	0.57(.571)
	ER, ICU, OR	109(79.0)	3.60±0.50	

CONCLUSIONS

외상센터 간호사의 노인 통증관리 수행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증 사정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행도를 보였다. 반면, 비약물적 관리 영역은 상대적으로 수행도가 낮아 간호사들이 약물 외의 다양한 통증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응급성과 높은 업무강도를 요구하는 외상센터의 특수한 환경, 그리고 노인 환자의 비전형적인 통증 표현과 복합적 건강 문제로 인해 간호사가 비약물적 접근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외상 환자의 통증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통증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통증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실제 임상상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훈련, 외상센터 환경에 적합한 표준화된 통증관리 지침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사의 경험 수준과 근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